

LG정유, 여수공장 완전 정상화

중단 16일만에 RFCC 본격가동 ... 석유화학 공정 가동률 90% 수준

LG-Caltex정유 여수공장의 중질유분해시설(RFCC)이 8월3일 본격 가동됨에 따라 LG정유의 공장가동이 완전 정상화됐다. 7월18일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된지 16일만이다.

정상가동을 시작한 중질유분해시설은 벙커C유를 분해해 휘발유 등 경질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고도화 공정이다.

중질유 분해시설의 정상 가동으로 LG정유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석유정제 공정은 하루 50만배럴 이상의 석유제품을 생산해 가동률이 80% 수준에 이르고 방향족 석유화학(BTX) 및 PP(Polypropylene) 공정 등도 90% 이상 가동돼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이 파업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됐다.

LG정유에 따르면, 현재 하루 평균 판매량의 17일분에 해당하는 석유제품 재고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휘발유는 20일분에 이르는 재고로 수급이 원활한 상태이고 나프타도 10일분 이상의 재고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화학기업들이 보유한 재고물량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G정유는 “공장 및 13개 전 저유소에서 제품출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석유제품 수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8/04>